

發明家を 올리는 仲介業

—美國을 비롯, 여기 저기서—

美國에는 發明開發에 관한 仲介業者가 있다. 미국뿐 아니라 이와 類似한 部類가 우리나라에도 있는 듯이 傳聞되나 요즘 미국에서는 이 같은 업자들에게 非難의 화살이 퍼부어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즈紙가 警告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름 있는 이른바 發明開發仲介業者 가운데 레이먼드·리·오가니제이션과 로렌스·페스카·아소시츠라는 두 組織은 約35,000이나 되는 發明家を 顧客으로 包容하고 件當 1,000~2,000 달러의 去來委託手數料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美本土나 海外에 10個所 以上の 支社를 갖고 年 100萬 달러 이상의 收入을 올리고 있는데 미국에는 이들 이외에도 數十個의 發明仲介者들이 있어 年間을 合算하면 1億 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거두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美中央政府去來委員會가 推算하고 있다.

그러나 可笑로운 일은 이들 仲介業者의 窓口를 통해서 發明이 實施化되는 率은 극히 드물어 3萬件 委託에 3건(레이먼드·리·오가니제이션)과 4,200건에 7건(로렌스·페스카·아소시츠)정도란 寒心한 少식이다.

結果적으로는 發明의 실시를 위탁한 사람은 中개수수료만을 빼앗기는 꼴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現狀은 미국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위탁자들은 中개업자를 걸어 訴訟沙汰가 자주 벌어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警察이나 消費者團體까지 動員되어 發明中개, 斡旋業務에 法的規制措處를 取하고 있다.

이미 캘리포니아州에서는 發明開發法이 議會를 通過했고 뉴욕크나

플로리다州 등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進行되고 있으며 美特許廳方針에 따라 發明부로카의 廣告掲載를 拒絶하는 新聞이나 雜誌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

許特許出願은 企業들이

—西獨 電機部門은 高水準—

西獨特許廳統計에 따르면 서독에서 出願水準이 가장 높은 電機關係의 1976年 出願과 特許賦與實況은 總 11,000件 出願에 4,324건이 特許되었다.

출원은 前年에 比하여 2.7%增加하고 특허부여는 1.9%의 증가이다. 여기서 刮目할만한 것은 출원의 대부분이 企業出願이며 그 가운데서 西獨企業이 全體의 52.4%인 5,755건을 차지했고 外國人出願

은 美國이 18%로 首位이며 다음이 日本 8.4%, 프랑스 4.6%, 스위스 4.1%의 順이다.

특허부여실적은 서독기업의 것이 57.1%인 2,469건으로서 出願率보다 登錄率이 높으며 미국은 13.2%로서 外國인으로서는 역시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은 8.7%, 베덜란드 6%, 스위스가 3.4%의 順位인데 프랑스는 출원률보다 등록률이 低調하다. ●



듀폰의 PET特許

—各國서 繫爭으로 번져—

美듀폰이 開發, 美國內에의 登錄을 契機로 各國에 出願하여 紛爭이 일고 있는 폴리에틸렌·텔레크다케트(PET) 2軸延伸보틀에 대하여 日本特許廳이 拒絶査定했다.

同特許는 美國內企業인 오엔스즈 일리노이즈와 컨티넨탈칸의 兩社가 共同으로 法院에 無効審判을 提起하고 있으며 西獨에서도 繫爭중이다. 문제의 PET 보틀은 罐裝, 食用油, 소스등의 容器分野에서 需要가

늘게되어 일본에서는 기꼬만會社에서 500cc 容器에, 미국에서는 펄시콜라회사가 콜라용기에 올봄부터 本格的으로 使用하고 있으며 일본의 三菱化學은 듀폰에서 技術을 導入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일본의 東洋紡績이 1974年 1월에 일본에의 특허출원과 더불어 公告된 것을 異議申請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특허청이 거절사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